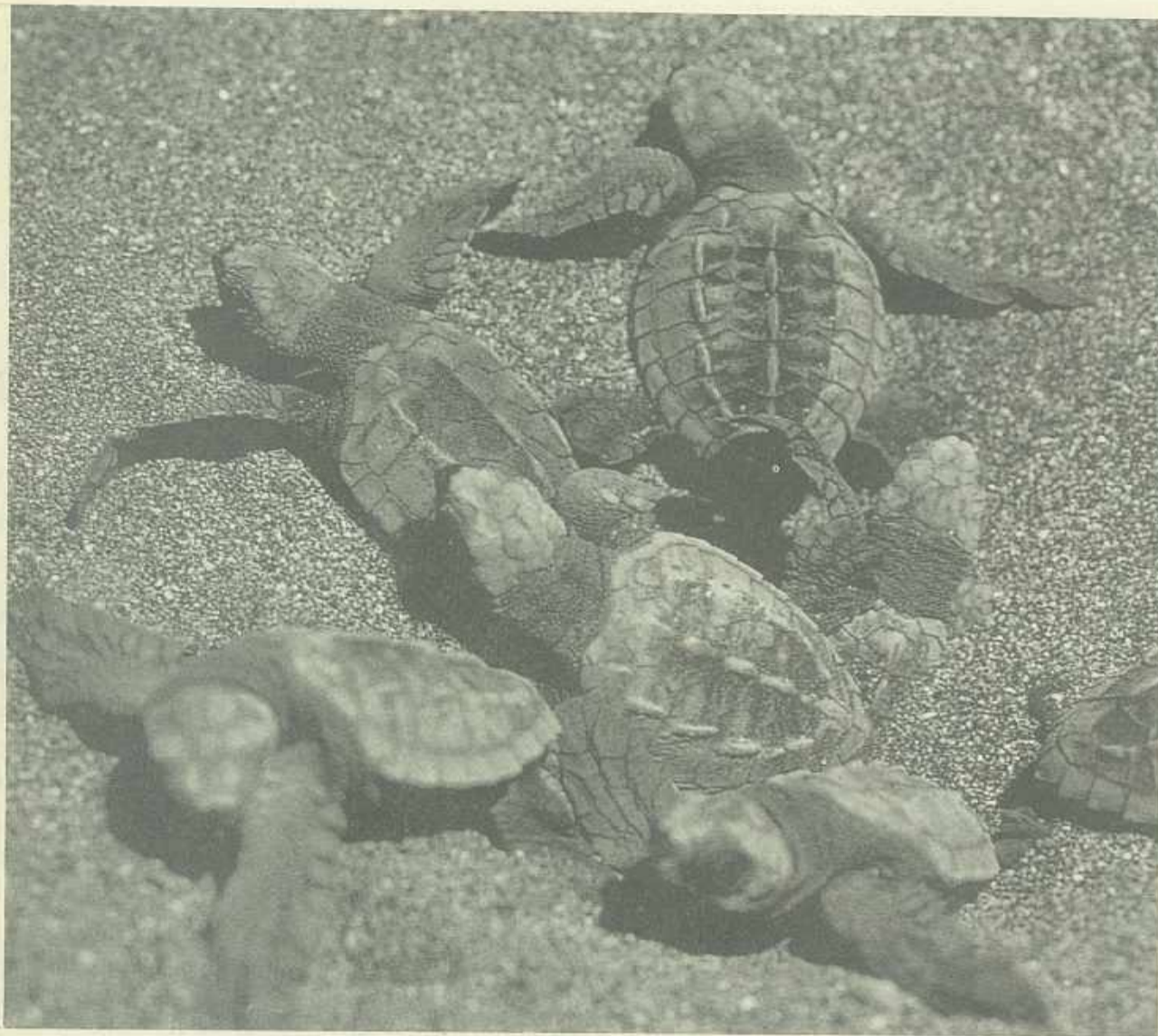


# 150마리중에서 불과 3마리만이 살아남는다



거북 : 2억년이 넘는 오랜 세월을 큰 변함없이 살아온 동물. 육지에서 부화되는 새끼는 한 번에 약 150마리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 황새 등의 먹이가 되고 극소수만이 바다로 가서 산다.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새끼 거북만이 살아서 바다에 가듯이—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함으로써 세계를 개척하는 일이 한화그룹이 추구하는 21세기 국제화 개념입니다.

의식 개혁을 통해 새로운 사고로 무장하는 일— 작은 기술을 소중히 하여 큰 기술을 만드는 일— 전 세계를 우리의 일터로 만드는 일— 이것이 21 세기를 향한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앞당기는 일— 한화그룹이 하고 있습니다.



## 한 화 그룹

# 한 화 그룹

## 會長 金昇淵



始祖墓所參拜

♡양경공 20대손 김수진

싱그러운 여름 8월 8일 언니와 나는 우리뿌리를 알기위해서 이곳 순천에 왔다. 필기도구와 옷과 기차표를 챙기면서 많은 의문들이 앞섰다. 하지만 우리집은 딸만 둘이라 자부심을 가지고서 집을 나섰다. 아버지와 어머님의 부탁 말씀 또한 상당히 장황하셨다. 어르신들 말씀 잘 듣고 열심히 하고 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출발을 했다. 기차로 순천까지 3시간 30분 순천에서 창촌까지 1시간 그리고 차를 타고서 10분정도 너무나 먼거리였다. 아침 9시 30분에 출발했는데 도착시간은 4시였다. 언니와 나는 짐을 놓고서 먼저 오신 분들과 인사 나누었다. 먼저온 재일 막내인 관용이, 회장 황의아재, 서울에서 온 동호, 동환아재들, 영득아재, 대구창희아재, 우린 끈끈한 혈육의 정을 나누었다. 다들 우리 순천김의 자손들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간 곳은 우리시조 김충할아버지를 모신 사당에 가서 절을 두번하고서 400년전에 김충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영정을 보았다. 밀려오는 감동을 느꼈다. 동그렇게 뜬 두눈, 휘어잡은 칼자루의 손, 장엄하게 태어난 모습에 더욱더 혈육의 정을 끈끈하게 생각해 보았다. 다음날 강의는 전서공, 양경공, 종의공들에 대한 공부였다.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족보보는법, 흥미진진한 좌담회, 모든 것들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우린 짧지만 길었던 3~4일동안의 일정에 많은 것들을 배웠으며 할아버님들의 좋은 말씀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여기에 와보지 못한 자손들이 있다면 한번쯤은 와볼만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경공 20대손 김수정

유난히도 부더웠던 날씨가 김었던 올 여름은 학교를 졸업하고 맞은 첫해고 나의 삶에 있어서 기초가 될 집안내려와 조상님들의업적, 전통예절등을 배움으로서 여러모로 남다른 해가 되었다. 첫날은 서로 약간 어색해 했지만 시조 할아버지가 계시는 곳을 찾아 뵈고 인사드리자 서로가 한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길게 자란 잡초를 뽑으면서 밭으로 고요하게 흐르는 논이 모자이크가 역사의 흐름속에 어떤장면을 연상시키는 듯 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찬물로 세수하고 문득 얼굴을 닦다가 바라본 동원재의 석색한 모습은 믿음직해 보였다. 둘째날의 하루는 족보 찾는 법과 현존님들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배웠다. 일과가 다 끝난후 앞 뜰에 다 모여서 컵라면을 먹었던 기억이란, 밤하늘 별이 얼마나 반짝거리고 나무 숲에서 나는 바람소리가 얼마나 멋지던지 자연과 조상님들의 어울어짐이 좋았다. 셋째날은 단축된 일과표로 아침일찍부터 공부부터 시작 하였다. 관·훈·상·제 및 덕성여대교수님의 특강이 있었다.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니 모든것이 아쉬기만 하였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오른다. 순천 김씨는 20대손이나 21대손까지가 많으니까 손수를 따지면 40촌안팎에 다 속하신다고 하셨다. 그러니 얼마나 가깝고도 멀게 느껴지는 관계인지. 이런 기회가 아니었다면 얼굴도 모르고 지나갈 수 밖에 없었으리라. 문득 얼굴 하나가 떠오른다. 아직 참석하지 않은 순천김씨의 후예들에게 꼭 참여하라고 권하고 싶다.

♡양경공 20대손 김창희

대학인으로서 마지막방학을 맞아 뭔가 보람되고 알찬 것이 없을까하고 이리저리 뛰 어다니던 나는 順天金氏중앙총친회에서 온 한통의 편지를 받았다. "순천김씨 대학생 하계수련회". 사실 대학 1학년때부터 아버지로 부터 말씀은 많이 들어왔었다. 그렇지만 왠지 일가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 만큼 불편하고 어색할것 같아서 이제껏 망설여 왔었다. 그러나 내년이면 사회에 발을 들여놓을 나로서는 내자신이 순천김씨라는 것 만일뿐 사실 우리 문중과 조상님들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다. "하계 수련회"에 동참하기로 한 나는 처음으로 시조 김충 할아버지의 묘소와 영정이 계신 이곳에 왔다. 생각 보다는 많지 않은 10명의 학생들이 서로 간단한 수인사를 나누후 시조할아버지의 영정과 묘소를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후 강사님의 "현조약사"와 "시조의 연원"을 들으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뿌리가 중요한것인가를 깨달았다 그리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처음 대면하는 각지에서 온 학생들과도 서로 별 어색함이 없이 서로의 손수를 따지면서 친해지는 것을 보고 동성동본이라는 가족의 중요성을 느꼈다. 다음날 족보를 찾아보면서 몇몇 학생들은 상당히 가까운 손수임을 알고 현대사회의 각박함을 생각하면서 웃음이 나왔다. 이제는 누가 "당신 집안의 내력이 무엇이요?" 묻는다면 당당하게 대답할수 있으리라. 마지막으로 많은 좋은 말씀을 들려주신 여러강사님들과 유사님들 그리고 식사를 위해 애써주신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第九回教養講座入所者名單

Table with 4 columns: 姓名, 生年月日, 住所, 學校名과學科. Lists names and details of participants in the 9th Education Lecture.

孝는 百行의 근본입니다. 中央宗親會에서는 사라져가는 우리의 미풍양속인 敬老 孝親思想을 유지 발전시키고 고변화된 시대상황에 걸맞고 는 孝觀念을 제정립 우리 고유의 孝意識을 생활속에 서 실천하는 宗親을 찾고 있습니다. 이웃과 지역사회 의 웃어른을 내 부모와 같이 恭敬하며 父母와 동일한 家庭에서 生活하면서 兄弟 父母의 友愛는 물론 至誠으로 內容과 實踐方法등이 이웃 과 지역사회에 模範이 되고 있는 宗親을 발굴 포상함으 로써 우리 문중이 孝行과 善行을 행함에 앞장서고 있는 家門임을 널리 홍보하는 방책으로 宗報에 掲載하고

人事 景德齋(義景公墓所齋室) 金光熙(理事) 金景南(監事) 金槿熙(理事) 金永洙(代議員) 各各有司에 任함. 1994年 9月 24日 字

中央宗親會 訪問 1994.9.20 現在. 本 中央宗親會宗報編輯室을 수시로 訪問하셔서 慰勞하시고 激勵하여 주신 여러 宗親님과 來賓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編輯室) [List of names and addresses]

제 9 회 수 강 생 의

김 상 분

♡양경공 19대손 김 영 득

남자가 군을 마치고 자신이 자기인생을 책임져야만 하는 成人임을 자각하면서 자신의 뿌리를 알고자 하는 욕망이 강렬해지는 것이 당연지사인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움을 구하기위해 참석한 수련회를 마치고 몇가지 생각을 적는다.

뒤돌아보면 처음의 서먹함을 금방 털어버리고 서로 진솔한 예기를 할수 있었던 문중의 가족들과의 유대감도 잊을 수 없지만 강의들 통해 얻은 족보에 대한 지식과 顯祖들에 대한 재인식 또한 큰 수확이라. 이제 누구에게도 당당히 우리 순천 김씨가 어떠한 가문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또 하나의 수확이라면 아마도 四禮에 대한 이해일터이다. 그중에도 冠·喪·祭·禮에 대한 것은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꼭 필요하다 생각되어 유심히 들었으니 아마도 앞으로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정이 하루 당겨져 모든것이 바쁘게 처리되었다는 점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큰 수고하신 강사님과 여러 유사님께 감사의 정을 드리면서 끝을 맺고자 한다.

그리고 총10명이라는 적은인원이었기에 더욱 가까워진 우리 9기 가족들의 건강과 행운을 빈다.



入 所 式

♡양경공 18대손 김 황 의

올해로서 졸업한지 대략 4년. 학교다니면서 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4박5일이란 시간을 내기란 좀처럼 쉽지않았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식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자신을 위해서도 조상님들의 업적과 제례라든가 강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알고 싶었기에 수강신청을 해놓고 막상 들어 올리고하니 밖에서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다가 문중 어른신들과 같이 생활한다고 하니 웬지모를 중압감이 느껴졌다.

그러나 막상와서 생활하니 그 모든 걱정들이 부질없던 생각들이었음을 느꼈다. 어려움은 있었으나 한 핏줄임을 아는 울타리 안에서지내니 작은실수나 어려움도 차라리 작은추억으로 남았다. 내가 회장을 맡아서 일을 하다보니 여러 어른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어느정도 이해하게되어서 마냥 죄송하기만 하였다. 같이 생활하고 지낸 우리 후예들이 큰 사고없이 마지막까지 열심히 생활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릴뿐이다.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 여러어르신들과 가르쳐주신 할아버지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다.



座 談 會 場



影堂參拜

♡양경공 19대손 김 동 환

이 글을 쓰려고 보니 문득 13여년전 생각이 난다.

국민학교 4학년때로 기억하는데 한 친구와 이야기를 하던 도중 자기는 '덕수 이씨'고 이순신장군.이윤곡선생이 자기 조상이라며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나에게 관해서 물었을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이사건(?)을 계기로해서 나도 나의 조상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려 노력하였으나 그 당시 내가 알아낸 건 "順天金氏"라는것, '金宗瑞장군'이란 분이 계셨다는 것이 전부였다

한참 세월이 흐르고 철이 어느 정도 든 후, 조상의 뿌리를 알고 싶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本能이라고 말할 정도로 당연한 것 이었다

불론 서울중친회 現 총무이사로 계신 큰아버지께서 틈틈히 가르쳐 주셨지만 좀 더 폭넓은 공부를 할 수있는 이 교양강좌는 더할나위 없는 好機였다. 생각 밖으로 적게 모인(9명) 宗親들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역시 피는 못 속이는 듯(?) 금방 형제처럼 친해졌다.

시조묘소,사당참배顯祖略史,족보, 四禮학습, 초빙강사특강 등을 통하여 정말로 많은것을 배웠고 歷史밖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폭염속에서도 우리들을 졸 틈 없이 만들었다. 특히 인상에 남았던 것은 '家長과 남편의 現代의 概念定立'이라는 주제에 男女간, 新舊간의 대립이 팽팽히 맞섰던 자유로운 시간이었다.

講師님들과 學生들의 참여부족으로 하루 앞당겨 끝나는 것이 이섭기는 했지만 무엇보다도 큰 수확이라고 할 수있는것은 이러한 조상들의 발자취를 통하여 부족하지만 나 자신의 앞으로 나아가야할 目標설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中央宗親會여러 어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경공 19대손 김 동 호

군대가기 전에 '순천김씨 대학생 수련회'가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 참가를 못하고, 복학한 후에 오게 되었다.

복학생이니 참가하는 다른 대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을것 같아 어색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기우였다. 예상보다 적은 수의 학생들이 모였지만 비슷한 연배끼리 모여서 그런지 첫날부터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처럼 친해졌다. 이튿날 부터 시작된 강의에서 조상들의 자랑스런 업적을 듣고 내 가슴은 뿌듯함으로 부풀어 올랐고 생각보다 쉽게 찾을수있게 만든 족보의 과학적인 구성에 감탄했다.

다음날 강의에서는 관혼상제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렵기도 했지만 이러한 전통들이 점점 무시되고 사라져가는것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앞으로 가꾸고 지켜나가야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다음 수련회에 올 대학생들에게 몇마디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고리타분하고 지루할것 같은 예상을 하고 오겠지만 수련회를 마치고 갈때는 조상에 대한 자부심과 잊지 못할 추억과 함께 수련회기간이 좀 더 길었으면하는 아쉬움으로 가게 될 것이다.

당초 계획보다 하루 앞당겨 끝나게 된 수련회가 아쉽게 느껴지며, 수련회 기간 동안 애쓰신 어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경공 19대손 김 영 석

제대하고 집에 있는 동안 이번에 중친회에서 교육이 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이말을 들었을때 매우 기뻐다.

왜냐하면 집에 족보가 있는데 마치 전열장의 구두처럼 무용지물로 있었고, 그것을 불러고 했지만 문맹인마냥 어떻게 할줄을 몰랐다. 그래서 나는 교육받음때 족보보는법과, 향렬,우리조상이 누구이며 몇대손인가를 정확히 알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처음엔 교육생들과 처음 만나기에 어색했지만 서로 일가친척이라고 생각하니 쉽게 적응이 되었고 교육시간에는 졸음도 오고,계속 앉아있었다보니 관절도 아팠지만 나의 결심한 바 무엇인가 남기고 싶은 정열은 쉽게 극복했다. 특히 분임토의 시간에 "가정과 남편의 개념정립"에서 요즘 신세대는 우리와 어른들과의 세대차이를 느끼게 했고 중친의 교수님 초빙강의는 정말 내자신을 발견하고 효가 무엇인지를 느끼게 했다.

우선 집에 가면 집안 어른들과 형제들에게 자랑스럽게 가르쳐 주어야지, 조금 아쉬운 점은 제사지내는 법을 실제로 해보지 못한 것이다.

집안어른들 하는것을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겠다.

마지막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 해주신 중친회 어른들께 감사 드립니다.



실내에서의 캠프파이어

# 姜泰永 할머님의 血族愛도 느끼고

## 一無軒 金炳鎰

올해는 90년 만의 暴暑라  
고 한다. 大地를 불태울듯하  
던 유난히도 덥던 여름도  
露를 고비로 거짓말처럼  
勢가 꺾기더니 어김없는  
을이 왔다. 그리고 이내  
毅이 結實을 다루는 黃金의  
季節, 첫번째 金目에서 秋夕  
도 잊고 제 지내고 어제는  
夕으로 제법 서늘한 가을  
씨가 이어지고 있다.

4日間の 講師님과 受講生간  
의 高교역활을 맞게 되었다.  
취침은 10시에 各自 단  
에 들었다.

9日 7시에 起床하여 始祖  
墓域의 雜草除去作業을 하고  
朝飯後에는 始祖를 비롯한  
典書公과 襄景의 略史를  
講義, 오후에는 顯祖略史를  
講義하였다. 저녁식사 후  
는 座談會를 열어 各自의  
見을 交換하고 親睦을 다  
는 시간이 되었고 취침은  
10시가 넘어서였다.

10日 朝飯을 마친후 講義  
에 들어가 族譜의 淵源과 族

# 第九回 大學生夏季教養講座

## 暴暑, 暴雨에 맹비 急襲의 試鍊도 겪고



용으로 現金을 贈겨 東昌  
幹事님과 世淵대부를 順天으  
로 גיע하는 同時에 前例에  
따라 進行하는 方法을 仔  
細히 說明하고 부디 여러 분  
이 議論하여 進行하도록  
三度 부탁을 거듭하고 每日  
가 入院하고 있는 病院으로  
現況을 알리고 또 그때그때  
내가 적절한 指示를 하기로  
約束하고는 이내 두 분이  
대신 수고를 하게 되었다.

금년에는 暴暑에다 暴雨로  
날씨가 不順하였고 受講生도  
例年에 비해 적었고 講師로  
수고하신 仁熙, 俊水, 志淵  
세 분이 不可避한 事情으로  
參加하지 못하게 되어 入院中

인 本人의 심사가 더욱 밝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니 자연  
히 수대부님 혼자서 애를  
쓰셨고 特講을 부탁한 世淵  
중 두 분은 不참하시고 金好  
載教授만이 폭우속에 서울에  
서 내려가 우리 血族의 二世  
교육에  
한 목적  
했으니  
고마운  
일이로  
다. 8월  
8日 午  
8時 豫  
定時刻  
에 同原  
齋에서  
入所式을  
마치고  
始祖墓  
所 參拜  
를 始  
한후 參  
拜 影  
堂 參拜  
를 行  
한데 參  
拜 影  
堂 參拜  
를 行  
한데 參  
拜 影  
堂 參拜  
를 行



\*第九回 大學生 夏季教養講座 修了記念\*  
1994. 8. 11

7시에 저녁식사를 마치고  
相見禮를 兼한 座談會에서  
學生會長을 選出하였는데 金  
黃翼受講生이 選任되어 入所  
후에 餘興(캠프)이 不

得已 同源齋 대청마루에서  
準備된 酒肴를 들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번 행사에  
物心兩面으로 協贊하여 주신  
분은 金昇淵 한하그를 會長  
님의 慈堂이신 姜泰永女史께  
서 金一封을 보내오셔서 姜  
氏할머님의 따뜻한 情을 느  
끼게 하였고 金料元博士가  
金10萬원을 金政堂博士가  
金10萬원을 보내오시고 한  
화그를에서는 生鷄와 수박,  
라면등을 順天市의 金順洙  
宗親은 올해도 하이승과 崑  
라를 보내와서 수강생과 從  
事員들을 感謝케 하였다. 또  
한 이날 講義에는 暴雨를 무  
릅쓰고 멀리 서울에서 金好  
載博士가 昨년에 이어 두번  
제로 내려와서 「家庭經營과  
家風」에 對한 特講을 하여  
受講生들의 絶對的인 呼應과  
好評을 받았으니 고마운 일  
이로다.

그러나 好事多魔라고 할가  
뜻하지 않게도 學生會長 金黃  
翼수강생이 밤중에 맹비나  
서 順天市로 移送治療하는  
소동이 있었으니 어찌 이런  
일이냐.

筆者는 이미 늙었으니 身病  
도 날만 하다고 치더라도 난  
대없이 세사람이나 별에  
여 治療를 받았고 학생會  
長의 身病과 負傷으로 移送入院  
治療를 받았으며 심지어는  
재실 관리인 조계삼씨는 入  
所하던날 光州病院에 入院하  
는등 뜻하지 않은 試鍊을 겪  
을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  
다.

그러나 이런 試鍊을 극복하  
며 애써 주신 수장장사님을  
爲始하여 中央에서 내려가신  
東昌, 世淵宗親과 每年 거르  
지 않고 參與하시는 奉城宗親  
東英都有司님과 南洙, 在雙有  
司님께 深深한 感謝를 표  
하는 바이다.

11日은 順天에서 治療를  
받고 돌아오는 學生會長을  
기다려 講義 參拜와 住岩潭  
觀光은 취소한채 修了證을  
授與하여 今年度 第九回의  
夏季教養講座를 마쳤다.

지금까지(第九回)의 受講生  
通算 167名에게 期待하는  
바가 크다. (一無)

金教授의 略歷  
典書公의 21代孫  
1945年 7月 24日 利川에  
서 出生  
德成女子大學校 主任教授  
經營學 博士



〈本論部分〉  
● 家政學에 經營學(Business Administration) 接木  
● 家政學과 經營學의 學問的背  
景(Back ground)說明  
● 家風의 重要性和 理論의 概念說明  
● 組織의 成果를 극대화시키

### 家庭經營과 家風

(序論部分)  
産業化와 物質文明의 소  
용들이 속에서 人間의  
生活은 풍요로워 졌지만  
社會의 秩序와 人倫은  
실종된지 오래고, 人間소  
의 現상내지 계층간의 갈  
등이 심화되고 있다.

바야흐로 國際化  
(Internationalization) 世  
界化(Globalization) 開  
放化, 情報化時代에 접하  
여, 個人과 社會는 물론  
國家의 危機의 극복과, 生  
存과 번영을 위해서는 좀  
은감이 있지만 이제 모두가  
웃기를 의미하여 할때다. 그  
래서 現實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健康한 家庭,  
健康한 社會를 造成할 精神的  
지주가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그의 일환으로 孝를 基礎로한  
家風에 對하여 檢討해 보고자  
한다.

### 金教授의 特講教材

● 組織文化에 관해서는 經營  
學分野中 人事管理(Personnel  
Management) 特히 組織行  
爲論(Organization Behavior)  
에서 자세히 說明하고 있다.  
● 家庭은 組織의 最少單  
位이며, 家庭의 平和는  
곧 國家와 社會의 安定  
을 가져다 준다.  
● 기성세대(어른)는 아  
침을 버리고, 고정관념을  
버리는 용단이 필요  
● 젊은이들의 웃어른을  
섬기는 효성을 꼭 지켜  
야 만사가 亨通  
(結論部分)  
● 組織의 有效性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增大시키  
는 原動力이 組織文化라  
고 한다면 家庭의 平和와  
安寧을 가져다 주는 것  
이 家風이다.  
● 훌륭한 家風을 위해서  
는 孝를 基礎로한 웃  
어른을 잘 섬기는 것이  
生活化되어야 한다.  
● 孝道는 「효도관광」시  
켜드리는것도 아니고,  
「충구」같은 드리는 것도  
아니다. 오직 眞實된 마  
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  
동어린 孝心이 生活化되  
어야 한다.  
● 家風인 美國人 D.McGregor  
의 「XY理論」이나 日本式  
家父長的 經營哲學인 Ouchi  
의 「Z理論」 또는 最近서 울대  
하고 이면우 고수의 W이론  
과 그 맥을 같이한다. 즉  
신바람나게 흥겹게 일하고,  
구성원들과 두터운 인간관계  
(Human Relation)를 유지하  
며, 「미모」고 생활의 질을 향  
상시켜, 보람된 삶을 향유하  
며 또 이것이 나와 가정의  
나아가서는 국가와 인류사회  
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원동력  
이 된다는 것이다.



# 順天金氏宗報

本宗報는 順天金氏 中央宗親會 會員 家口當 1부씩 無償으로 配布합니다.

發行人 金鍾植  
編輯室長 金炳益

發行所  
順天金氏 中央宗親會  
서울 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46-1(태평빌딩)  
電話: 02-718-0529

題字  
無影金仁厚  
<中央宗親會 理事>

## 올바른價值觀정립으로團合

### 金鍾植 會長 인사

順天金氏 中央宗親會 創立第 五週年을 맞이하여 宗親여러 분의 家庭에 幸運이 가득하 시기를 祈願합니다. 사람마다 自己의 姓을 所重히 여기 고 祖上을 崇拜하고 있는것 은 사실입니다. 祖上을 尊되 지 않게 하고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 子孫들의 하는 일 입니다. 그래서 團體(宗親會)를 組織하여 爲善事業을 展開하며 子孫들은 社會에 모범이 되도록 育成할려고 畫

니다. 그러나 이 東方禮義之 體라고 일컫었는데, 孝가 없 이는 忠誠이나, 스승을 숭배 하는일, 이웃을 사랑하는것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 니다. 여기에서 功으로 精 神的인 餘裕가 生겼을때 이 富裕層의 그릇된 教育熱과 富裕層의 生活로 因하여 知識傳達에만 手段方法을 가 리지 않고 非良心的인 問題 이든 犯法行爲인 일도 가리 지 않고 恣行 되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그래도 좋은편 이나, 요즘은 極端的인 惡質 犯罪行爲도 當然하다고 주장 하고 있으니 어찌 된 일입니 까. 教育은 사람이 바탕이 되어 올바른 社會教育이 되 어야 하는데 이것은 完全히 잊어버리고 오로지 黃金萬能 의 知識注入의 기계식으로 만 들고 말았습니다. 지금이 라도 우리는 人間教育 으로 돌아가서 人間關係 (Human Relation)의 正립으로 社會淨化가 時急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모든 바른 行動의 根本은 孝에 있다고 봅니다. 孝는 하나의 倫理, 道德의 根本만이 아니라 深 奧한 哲學이 담겨져 있습니다. 孝는 모든 道德의 根本 律法임으로 古來로 君師父一



夜奮闘 努力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周邊環境이 不遜하여 매우 憂慮되는바 嗣子(宗親) 上傳來의 田·畝·山地를 팔 아 넘기는 등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門中에서 발도 못 붙이게 徹底히 斷切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東方禮義 之國으로 指稱되고 있는것은 自他가 잘 알고 있는 事實입

## 中央宗親會第五期 定期總會 盛了

### 善行者 表彰 功勞牌도 傳達하고



順天金氏中央宗親會는 1994년 4월 24일 12시에 서울 中區 長橋洞 玄岩빌딩 28層 大會議室에서 金東基理事 司會로 第五期定期總會를 開會하였다. 本會 議 開會에 앞서 仁川市에 居住하는 金仁女孝婦에게 善行賞牌을 授與하고 宗親會發展에 寄與한 金載俊、

金相佑두분에게 各各 功勞牌을 授與하고 激勵하였다. 金鍾植 會長님은 人事말씀에서 宗親여러분과 家庭에 幸福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더욱 團合을 固執히하여야 할것이 며 禱안으로 떠올라 論難中 에 있는 襄景公祖, 位土, 賣却處分問題는 宗親여러분의 意見을 充分 收斂하여 處理 할 것이나 位土를 더 늘이지 는 못할망정 차후에라도 판 아 먹었다는 말을 들을수는 없으니 이 문제는 진지한 토 의가 있기를 부탁하였다. 一年間의 業務報告를 金五淵

에 全額 納付하여 主실것을 指摘 당부한다는 監查報告가 있으나 第六期 歲入歲出 豫算審議에 들어가 歲入額 24,160,000원과 歲出額 23,460,000원 으로된 原案을 審議通過하였 다.

任員 補選에 들어가 監事에 金圭南, 金贊洙, 金景南 諸氏를 選出하고 常任副會長에 는 金載俊副會長을 任命하였 는데 載俊常任副會長은 人事 말에서 芳春書院에 來年 四 月까지 祠宇補修費조로 金五 百萬원을 奉呈할것을 議席에 宣言하니 拍手로서 크게 歡 迎하였다.

第四號議案인 位土賣却處分 의 件은 位土는 단 한평도 관 수 없다는 金光熙理事의 提 案을 全員 贊同하니 金鍾植 議長은 이를 否決되었음을 宣言하다.

金贊洙 芳春書院 有司님의 現在 芳春書院의 維持管理 現況을 說明했고 모든 會議 案件을 圓滿히 議決한 다음 宴會場인 河東館에서 해가 질 무렵까지 親睦을 다졌다. (一無)

總務幹事님이 朗讀說明하니 場內는 拍手로서 實務陣의 勞苦를 慰勞하다. 第五期 決算報告를 全員拍手 로서 原案대로 通過시킨다음 金圭南監事님은 監查報告에 서 運營面에 있어서 그 內容 이 正當하고 良好하여 幹事 님들의 勞苦에 謝意를 表하 는 바이나 任員님들의 年會 費가 3,300萬원이나 累 積되어 있어 宗務遂行에 支 障을 招來하고 있으니 未納 任員님들께서는 빠른 時日內



**人事**

金載俊常任副會長에 任함.  
金圭南 監事에 任함.  
金贊洙 監事에 任함.  
金景南 監事에 任함.  
1994년 4월 24日字

金嶺國 理事에 委囑함.  
金東昌 組織幹事에 委囑함.  
1994년 5月1日字





### 第五期 決算報告書

(1993년 4월 1일 ~ 1994년 3월 31일)

收入部

順天金氏中央宗親會

科 目	金 額	摘 要
會長年會費	2,000,000	1人 2回分
副會長年會費	900,000	3人分
顧問年會費	150,000	5人分
監事年會費	90,000	3人分
幹事年會費	120,000	4人分
理事年會費	1,460,000	金大永理事 外 45名分
代議員年會費	730,000	金商右代議員 外 30名分
世帶當年會費	230,000	김두연씨 外 13名分
收入利子	917,860	農協 2,517 한일은행 915,343
世蹟配當金	10,000	
雜收入	150,750	任員手帖 製作費와 代金差額
贊助金	11,940,000	金相容氏外 38名 (別添明細表)
宗報發刊協贊金	2,700,000	金沅杰氏外 16名 (別添明細表)
小 計	21,398,610	
前期에서 移越金(現金)	82,912	
預 金	18,566,598	
小 計	18,649,510	
合 計	40,048,120	

支出部

科 目	金 額	摘 要
給 料	5,050,000	女職員 1人 給料
手 當 金	2,250,000	女職員 1人 月 50,000원 과 出納手當月 100,000원
旅 費	4,819,280	常勤幹事 3人 交通費와 旅費
會 議 費	2,434,350	會長團會議費 436,720 幹事會費 366,200 總會費 1,631,430
備 品 費	290,000	生水器 施設費用
圖 書 費	165,250	新聞1部 購讀料와 姓氏의故郷 代金
事 務 用 品 費	37,900	
香 料	260,000	始祖와 典書公 襄景公 墓祀香料其他
教 養 講 座 費	1,076,070	第八回 講座費用
宗 報 發 刊 費	5,372,900	6號와 7號 發刊費와 8號 費用1部包含
施 賞 費	330,000	賞牌, 功勞牌, 感謝牌와 副賞品代
始祖墓域淨化費	1,585,140	始祖墓域淨化支援費
襄景公宗土保存費	1,341,950	西霞里 宗土 名義移轉請求訴訟費用
通 信 費	42,680	
組 織 費	45,400	
消 耗 品 費	30,300	
宗 務 費	237,120	
接 待 費	442,900	
雜 費	207,400	
小 計	26,018,640	
現 金	106,590	
預 金	13,922,890	한일은행 8,883,146 農協 39,744 한국투자신탁 5,000,000
小 計	14,029,480	當期剩餘金(次期에 移越金)
合 計	40,048,120	

### 第六期 歲入歲出豫算書

(1994년 4월 1일 ~ 1995년 3월 31일)

歲入部

順天金氏中央宗親會

科 目	金 額	摘 要
會長年會費	1,000,000	1名 (1,000,000원)
副會長年會費	3,000,000	10名 (300,000원)
監事年會費	90,000	3名 (30,000원)
名譽會長年會費	30,000	1名 (30,000원)
顧問年會費	390,000	13名 (30,000)
幹事年會費	180,000	6名 (30,000원)
理事年會費	4,830,000	161名 (30,000원)
代議員年會費	3,140,000	157名 (20,000원)
世帶當年會費	1,000,000	200戶 (10,000 × $\frac{50}{100}$ = 5,000원)
贊助金	9,000,000	宗報發刊協贊金包含
世蹟配當金	100,000	世蹟 10卷 代金
收入利子	1,200,000	預金 15,000,000원에對한年8%
雜收入	200,000	任員手帖代金 等
小 計	24,160,000	
前期에서 移越金(現金)	106,590	農協 39,744 한일은행 8,883,146
預 金	13,922,890	한국투자신탁 5,000,000
小 計	14,029,480	
合 計	38,189,480	

歲出部

科 目	金 額	摘 要
給 料	4,800,000	女職員 1名 月 400,000원
手 當 金	2,200,000	女職員 1名 月 50,000원 其他年 400,000원
交 通 費	5,460,000	財務幹事 1名 出納手當月 100,000원 常勤幹事 3名 6,500 × 3 × 20 × 12 = 4,680,000원 기타 2名 6,500 × 2 × 5 × 12 = 780,000원
會 議 費	2,300,000	會長團會議年 2回 100,000 × 2 = 200,000원 理事會議費年 1回 4,000 × 90 = 360,000원 幹事會議費年 6回 4,000 × 10 × 6 = 240,000원 總會費年 1回 150 × 10,000 = 1,500,000원
宗 報 發 刊 費	5,000,000	年 2回 發刊費(發送費包含)
教 養 講 座 費	1,000,000	年 1回 (第 9回 實施費用)
施 賞 費	300,000	善行者 및 功勞者年 2回 (副賞品代金包含)
顯 祖 祭 享 香 料		始祖祭享香料 春秋 各 100,000원式 典書公襄景公 秋享時 各 50,000원 其他 100,000원
備 品 費	200,000	
圖 書 費	200,000	新聞 1部 購讀料 其他 圖書購入費
事 務 用 品 費	120,000	月 10,000원
通 信 費	120,000	月 10,000원 (宗報發送費除外)
接 待 費	480,000	月 40,000원
印 刷 費	120,000	月 10,000원
宗 務 費	100,000	存置科目
組 織 部 費	100,000	存置科目
青 年 部 費	100,000	存置科目
婦 女 部 費	100,000	存置科目
消 耗 品 費	120,000	月 10,000원
雜 費	240,000	月 20,000원 (接待用茶代와 生水代金等)
小 計	23,460,000	
次 期 移 越 金	14,729,480	
合 計	38,189,480	

## 鳥嶺產業社

社 長 昭 俺 金 喆 熙



서울特別市江南區 道谷洞 456-8

電話 : 572-5059, 573-5968

自宅 : 서울特別市 江南區 狎鷗亭洞 現代 APT 77棟 803

電話 : 543-5439

- ◆襄景公 20代孫
- ◆忍百堂 14代孫
- ◆서울 宗親會長
- ◆中央宗親會副會長

# 任員 年會費 納付 現況表

(1994, 9, 20 現在)

## 副會長 年會費

金敏淵	5次	서울 은평구	300,000
金麟煥	5次	대구 남구	300,000
金載俊	5次	서울 강남구	300,000
金料元	6次	광주 동구	300,000
金敏淵	6次	서울 은평구	300,000
計			1,500,000

## 監事 年會費

金圭南	6次	충남 보령군	30,000
計			30,000

## 顧問 年會費

金仁培	6次	일본국 동경도	30,000
金福山	1-5次	서울 종로구	150,000
金大淵	5次	대전 대덕구	30,000
金相舜	6次	서울 종로구	30,000
金道淵	1-5次	서울 성북구	60,000
金鍾鎬	5,6次	충남 천안군	60,000
金喆熙	6次	서울 서대문구	30,000
金采源	5,6次	서울 영등포구	40,000
計			430,000

## 幹事 年會費

金永日	6次	경기 안산시	30,000
金炳鎰	6次	서울 강남구	30,000
金五淵	6次	서울 중랑구	30,000
金東昌	6次	서울 강동구	30,000
金仁熙	6次	서울 서대문구	30,000
計			150,000

## 理事 年會費

金允喜	6次	도봉구	30,000
金永祥	5次	송파구	30,000
金重吉	2次	서울 중구	30,000
金孝南	6次	경기 김포군	30,000
金權熙	6次	인천 남동구	30,000
金東玉	5次	경기 고양시	30,000
金重吉	4次	서울 중구	30,000
金景南	6次	경기 안산시	30,000
金錫均	5次	경북 예천군	30,000
金東英	6次	전북 임실군	30,000
金東泰	6次	전북 임실군	30,000
金炳和	5次	서울 마포구	30,000
金相容	6次	서울 중랑구	30,000
金時淵	4次	강원 태백시	30,000
金基淵	5次	경기 부천시	30,000

金俊一	6次	서울 서초구	30,000
金弘	4次	서울 종로구	20,000
金東錫	6次	서울 양천구	30,000
金志燮	5次	충남 보령군	30,000
金東映	5次	서울 강남구	30,000
金奉斌	5次	전남 해남군	30,000
金在燮	6次	광주 서구	30,000
金政壹	6次	광주 서구	30,000
金河鍾	5次	부산 부산진구	30,000
金時淵	5次	강원 태백시	30,000
金一貞	5次	충남 부여군	30,000
金志燮	6次	충남 보령군	30,000
金河鍾	6次	부산 부산진구	30,000
金沅杰	5,6次	경북 안동시	60,000
金湜淵	6次	경북 문경군	30,000
金俊淵	5,6次	부산 동구	60,000
金達賢	6次	서울 강남구	50,000
金炳箕	1,3,4,6次	부산 동래구	120,000
金順洙	1,3,4,5,6次	전남 순천시	140,000
金大永	5,6次	경북 문경군	60,000
金敏淵	3,4次	서울 은평구	60,000
金東浩	4,5,6次	충남 천안시	90,000
金好載	5,6次	서울 서초구	60,000
金信弘	5,6次	충남 온양시	60,000
金光熙	3,4次	서울 서초구	60,000
金文載	5,6次	서울 관악구	60,000
金熙院	4,5,6次	서울 송파구	90,000
金仁善	6次	경기 고양시	30,000
金軒載	5,6次	경기 이천군	60,000
金榮培	5,6次	서울 마포구	60,000
金東百	6次	서울 송파구	30,000
金永昌	6次	서울 강서구	30,000
金洪錫	5,6次	전남 해남	60,000
金仁載	6次	경기 안양시	30,000
金東吾	3~6次	경북 점촌시	120,000
金仁厚	6次	인천 서구	30,000
金萬植	5次	경기 성남시	30,000
金在根	6次	서울 양천구	30,000
金在龍	6次	서울 송파구	30,000
金商萬	3,4,5,次	대구 북구	100,000
金東映	6次	서울 강남구	30,000
金炳學	6次	경기 안성군	30,000
金七星	4,5,6次	전남 순천	90,000
金鍾九	6次	경북 예천군	30,000
金淳環	6次	대전 대덕구	30,000
金慶熙	6次	경기 부천시	30,000
金源善	6次	대전 대덕	30,000
金千守	5,6次		60,000
計			2,770,000

## 代議員 年會費

金弘泰	5,6次	서울 관악구	40,000
金讚貞	4,5,6次	충남 보령군	60,000
金長煥	4,5次	충남 보령군	40,000
金虎南	4,5次	경북 상주시	40,000
金大洪	4,5次	충남 보령군	40,000
金榮熙	5次	서울 동대문구	20,000
金宗憲	4次	서울 강동구	20,000
金炳愚	4次	서울 도봉구	20,000
金和永	6次	대전 중구	20,000
金赫載	5次	서울 영등포구	20,000
金東日	6次	충북 충주시	20,000
金商右	5,6次	서울 양천구	40,000
金龍載	6次	서울 서초구	20,000
金東伊	5,6次	경남 울산시	40,000
金完善	6次	경기 고양시	20,000
金漢洙	5,6次	경기 화성군	40,000
金大永	6次	경북 문경군	10,000
金商和	4,5,6次	전남 고흥군	60,000
金庠均	5,6次	경기 양평군	40,000
金榮淵	5,6次	서울 은평구	40,000
金七星	123次	전남 순천시	50,000
金明洙	2,6次	서울 동작구	30,000
金東哲	2,3次	서울 강서구	30,000
金千守	1,2次		30,000
計			780,000

## 世帶當 年會費

김해동			10,000
김우진	강남구	(이하 21세대 재능의 대남)	5,000
김홍신	재불란서		5,000
김세진	재영국		5,000
김동진	성남시 수정구		5,000
김창진	성남시		5,000
김두진			5,000
김향영	서울 중구		5,000
김승진	서울 송파구		5,000
김성진	재미국		5,000
김영란	재불란서		5,000
김형진	재미국		5,000
김수진	서울 송파구		5,000
김다애	재미국		5,000
김영우	경남 마산시		5,000
김미행	경남 창원시		5,000
김미경	경남 마산시		5,000
김지숙	재미국		5,000
김재숙	경기 안산시		5,000
김경희	서울 용산구		5,000
김영희	강원도 화천군		5,000
김재경	강원도 원천군		5,000
김부자	부산시		5,000
計			120,000

浦 洞 注 油 所  
 高 速 注 油 所  
 東 山 注 油 所  
 그 린 社 長 金 永 日

主事務所：시흥시 포동 1~34

전화：시흥 (032) 695-5522, 5533  
 안산 (0342) 401-5551~2  
 (0342) 419-8301~2  
 自宅 (0346) 401-1001



◆襄景公派  
 ◆正郎公 18代孫  
 ◆中央宗親會 青年幹事





# 昭俺金詰熙宗親淨財一千萬元獻誠

## 月潭祠와景德齋補修費로

9月24日 本會 創立五週年 紀念自祝宴場에 參席한 서울宗親會長 昭俺金詰熙 (昭俺은 詰熙宗親의 雅號) 宗親은 私財 壹千萬원을 中央宗親會 預金口座에 送金하였음을 알려왔다. 贊助金으로 받아들라는 것이었다.

筆者가 그 動機를 물으니 特別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화그룹」會長이 代를 이어 宗事を 하여왔고 近者에도 始祖墓域을 王陵에 버금가는 짜임새있고 壯嚴하



게 꾸미는 것을 볼때, 獨悭은 후손으로서 悚懼之心이 들며 어느 特定人 한사람에

개만 맡길것이 아니라 十畝一飯格으로 작은 힘이나마 宗親의 힘을 모으면 큰 宗

事라도 수월 할것이 아니겠느냐며 작은 돈이지만 月潭祠와 景德齋 補修費用으로 쓰기를 바란다면 자리를 뜨기에 記念寫眞이라도 찍어서 宗報에 실자고 하니 그럴 必要가 있겠느냐며 더는 말을 잇지않고 충충히 떠났다. 昭俺의 등뒤에 따라서 한가을 햇살이 燦爛히 비쳤다.

(一無)

### 華燭

■金俊一理事님의 長女 華榮양이 一九九四年五月二十一日(음)四月十一日) 토요일 2시에 崔成根氏의 長男 景律君과 양계동 동원산업빌딩 20층 강당에서 家族 親知들의 祝福속에 華燭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本會 副會長 幹事長 炳鎔 宗親이 참석하여 祝福하였

### 壽筵

■金時淵理事님의 長女 미경양이 김옥녀여사의 삼남인 안준만군과 一九九四年五月二十九日 일요일 오후一時에 태백석단회관 三층 예식부에서 百年佳約을 맺고 披露宴을 태백석단회관 부페와 한성회관에서 盛大하게 베풀었는데 이 자리에는 金東昌 本會組織幹事님이 參席하여 두사람의 앞날을 祝福하였다.

### 訃音

같이 孝心이 至極하여 訃사들의 哀痛을 받았다.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長男 永日 幹事의 歡壽를받는 金基順女史

■金東活理事께서는 持病으로 因하여 1994年6月28日 午前 2시에 서울 銅雀區 鷺梁津 三洞 205의 28번지 自宅에서 別世하셨다. 葬日은 1994年6月30日 葬地는 安東九潭洞西麓先塋下에 安葬하였다. 遺族은 婦人 豊陽趙氏와 三男一女가 있다.

■典書公의 二十一代孫인 金亮載宗人은 1994年7月18日 上午 2時에 大田市 東區 孝洞 168의 3 自宅에서 別世하였다. 葬日은 1994年7月20日 下午 2時에 大田公園墓地에 安葬하였다. 삼가 冥福을 빕니다. 故人은 1939年 12月1日 京畿 利川에서

### 宗報原稿 投稿환영

宗報는 中央宗親會의 會報로서 상부상조하며 宗親會 發展에 寄與하고자 會員 모두가 만드는 會원의 大襟紙입니다. 더우기 우리 祖上님들의 偉大하신 업적을 살피고 그 높은 뜻을 이어 받음으로서 나를 알고 나의 뿌리를 아는 데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재미있고 有益한 宗報를 만들고자 하오니 宗親會를 만들고자 이 參與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宗親會 諸君의 投稿을 환영합니다.

### 웃고내용

- 一、宗사와 관련된 行事나 活動狀況
- 二、宗친간에 상부상조하는 美談
- 三、宗친의 逸話·詩와 隨筆
- 四、모든 宗친의 勳靜(華燭·祝宴·學位榮轉·訃告·其他)

▽宗報編輯室△

## 公告

順天金氏서울地域宗親會에서는 今年十一月三日(陰十月一日)우리의 始祖墓祀에 參禮하실분을 다음과 같이 募集합니다.

### 記

- 一、出發日時... 一九九四年十一月二日(陰九月二十九日) 水曜日 十二時
- 二、集合場所... 中央宗親會廣場麻浦區 桃花洞 四六一一
- 三、人員... 五十名(先着順)(大型버스 一車分)
- 四、申請場所... 中央宗親會組織部 電話... 71810529
- 五、參加會員... 金壹萬원 「香料와 中食代金」
- 六、交通便... 서울 宗親會에서 大型觀光버스 一대를 提供함
- 七、服裝... 缺禮가 되지않는 程度의 簡便 服으로 할것
- 八、其他... 問議事項은 서울 宗親會와 中央宗親會에 問議 하실것
- 九、參加資格... 서울市、仁川市、京畿道에 居住 하는 會員

### 右와如히 公告함

一九九四年 九月 二十四日

서울地域宗親會  
會長 金 詰 熙

**구여울宗親會 定期總會 開催**

구여울宗親會(會長 金洛薰)에서는 1994년 5월 28일 토요일 13시에 市內 鍾路3가 宗廟 永寧殿 中마당에서 今年도 정기총회를 열어 宗親間의 親睦과 和合을 다지며 아울러 夢寐間에도 잊을수 없는 두고은 故 鄕山川의 아름다운 옛 追憶을 나누는 情다운 자리가 되었다.

더욱이 家族同伴은 勿論 特別히 우리들의 이어나갈 젊은 世代들을 인도하여 우리 宗親間의 結束과 中興을



다지는 자리가 되도록하는 方便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도 어린이 미술대회를 열 어 뜻있고 색다른 모임을 가졌다. (二無)

**店村市 閭慶郡 宗親會 同源齋에서 定期總會 開催**

店村市와 閭慶宗親會(會長 金東吾)는 今年도 定期總會를 1994년 6월 19日



始祖墓下 同源齋에서 開催 하였다. 멀리 일본에서 仁培 宗親이 參席하였고 서울에 있는 一行들 案內次 炳鑑 宗親이合流하였다. 參加人員 全員이 眞正정연하게 墓所를 參拜하고 祠堂에는 簡略하나마 正성정 장만해은 祭需을 올렸다. 墓所와 齋室 其他 位土의 管理狀況과 史蹟地의 說明을 仔細히 들은후 總會를 열고 친목을 다졌다. 이 行事는 地方省墓團으로는 보기드문 盛況으로 男女老少가 한대 몽친 二百餘名의 集團은 實로 壯觀을 이루고 近洞民에게도 順天金氏의 面貌를 크게 과 시 하였다. 店村閭慶宗親會의 發展이 거듭하기를 기원한다. (一無)

**芳春書院 祭享日을 三月十日로 改定하고 全羅南道 儒林이 主管 春享嚴修祠堂 重修도 마무리 道補助費3,500百원**

芳春書院의 祭享은 每年가 을 霜降日에 올려 왔으나 全羅南道 儒林의 提案으로 음력 三月에 春享으로 하기로 改定하고 今年부터 음력 三月十日로날을 잡아 柳仁默 院長 主管下에 道費 3,500 萬원의 工事費로 새로이 重修(完全新築)한 祠堂에서 嚴修하였다. 여기에 中央宗親會에서는 副會長兼幹事長인 炳鑑宗親이 參禮하였다. (二無)



**中央宗親會 創立 第五週年과 宗報發刊 四週年 記念 自祝모임 盛況**

本會 會議室에서는 1994年9月24日12時正刻에 任員과 實務陣이 모여 本會 創立五週年과 本報發刊 第四週年을 自祝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金鍾植本會 會長님은 人事 말씀에서 우리는 이 時點에서 더욱 精進하여 몇百年 國宗親이 一致團結하자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宴會場에서는 해가 저물도록 中央宗親會의 持續的인 發展과 宗務全般에對한 眞摯한 意見 交換이 있었다. (二無)

本會 會議室에서는 1994年9月24日12時正刻에 任員과 實務陣이 모여 本會 創立五週年과 本報發刊 第四週年을 自祝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金鍾植本會 會長님은 人事 말씀에서 우리는 이 時點에서 더욱 精進하여 몇百年 國宗親이 一致團結하자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宴會場에서는 해가 저물도록 中央宗親會의 持續的인 發展과 宗務全般에對한 眞摯한 意見 交換이 있었다. (二無)



**金佶弘 宗親 文壇에 登壇 문학탐구에 실린 당선소감과 珠玉같은 詩두편을 轉載함.**



**● 金詩人 略歷**

1945年 11月 6日生 元名 弘貞 翊贊公 16代孫 大國대학교 행정대학원을 나와서 天安檢察廳勤務 順天金氏 中央宗親會理事

**《오십의 문턱에서》**

세월이 불혹을 넘어 오십의 문턱에서 한국문단에 영광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면면히 부족할 글을 열 골조차 내밀기가 부끄러웠는데도 불구하고 땀아주신 심사위원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한국문학탐구회와 문단 안팎의 선배님, 김우영 詩友, 직장 동료 및 金承鎬 支廳長님 가족들에게도 감사사를 드립니다. 저를 추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분들께 보답코저 보다 깊고 진솔한 작품을 쓸수 있도록 열 심히 정진하겠습니다.

金佶弘

**《흙》**

김길홍

후돈이었다  
태초에는  
빛도 없는 궁창  
어둠뿐이었다 그리고 차욱한 안개구름 울어지고  
어느 새벽이든가  
종소리처럼 하늘갈라지면서  
빛 한줄기 내리어  
말씀으로 울려 퍼졌다  
들끓던 흑암  
은한등이 대지가 되어  
어머니 구멍처럼 높고  
그 고통의 골짜기에서  
연두빛 새봄처럼  
나는 한줌 흙으로 빛어졌다  
광야엔 불길의 트이고  
꾸렁꾸렁 돌아나는  
생명의 승멸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꽃씨가 자라 나무 되게 하고  
가을날 다시 죽어  
그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청포리밭》**

김길홍

어둠고 바람찬  
어둠의 땅  
地心깊이 뿌리내리고  
넘어지고 함하면서  
무르게 일어서는 파도처럼  
하늘끝 일렁이는  
청포리밭

천리길 고향마을  
허기진  
어머니 손짓 어린다

서울 地域宗親會 景德齋 位番 整理費로 3百90萬원 獻誠 열세 「다랭이」를 네 「땀」이로

서울 地域宗親會(會長 金誌熙)께서는 1992년에 特志宗親의 協贊金으로 始祖史蹟地入口에 標石을 세우는 大宗事를 한바있어 本報 第六號에 掲載報道하여 全國宗親에게 알린바 있거니와 今年에는 서울地域宗親會 基金으로 廣州郡 元唐里所在 襄景公 位番中 311番1183坪과 93番599坪 都合 1,782坪(約九斗落)의 農地 整理費用으로 金三百九十萬원을 獻誠하였다. 이로써 當初 이 位番은 아홉다랭이와 네다랭이등 열세다랭이로 되어던 것을 네랭이로 整理되어 耕作하기가 便利하게 되었으니 多幸한 일이다. 앞으로는 서울地域宗親會의 계속적인 宗中 事業을 期待하는 바이다. (一無)

이동사항을 알려주시시오. 宗親회의 각종 회의 및 행사에 대한 안내는 물론 宗보(宗報) 발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九四年 三月 이후 주소 또는 전화번호 변경이 있으신 종친은 즉시 전화 또는 서면으로 중앙종친회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사항 신고내용 · 종파와 성명 · 주소와 우편번호 ·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서울 특별시 마포구도 동동 46의1(태평양빌딩)  
(우편번호 121-040)  
전화: (02) 718-0529  
中央宗親會 組織部

顯字는 冠玉이며 본관은 順天이요 호는 北渚이다. 신미년에 나서 무자년에 죽었는데 나이는 七十八歲였다. 무사 여물의 아들인데 병신년에 문과에 올랐고 正社元勳·奉國功臣·昇平府院君이 되었다. 정묘년에 정승에 임명되어 영의정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문충공이다.

〈죽었을 때〉세자가 조상하러 왔고 임금은 고기없는 찬을 갖새동안 들었다.

병신년에 承文院에 있다가 나가서 복수장 김시현을 따라 충청 경상도사이를 출임하였다. 公務로 인하여 惠州에 갔는데 牧使는 武人으로서 공에 팔시를 받아 크게 유감으로 생각하며 사헌부에 있는 자기의 조카를 충동하여 공을 탄핵하여 仕版을 작기게 되었다. 충주의 여러 사람들이 그 억울한 것을 호소하였는데 신숙년 봄에 都承旨 김시현이 공의 억울한 사실을 소로서 진술하고 자가 직접 눈으로 본것을 증거 대었다. 임금이 대신들에게 의논할것을 명하였으나 대신들이 의논하기전에 공의 이름이 마침 옥당 신복에 들었다. 임금이 이르기를 아침에 풀리면 저녁에 녹에 들수있지만은 누시에 풀리지 않았으면 바시에 녹에 들수 없다. 하고 마침내 명하여 그 녹을 삭제하도록 하였 다. 조급뒤에 대신들이 풀어야 한다고 의논하니 비로서 임금이 명하여 풀어 주고 선택되어 翰林으로 들어갔다.

# 顯祖略史北渚公(諱塗)編

(芳春書院考에서轉載)

전주관관으로 있을때 한 백성이 거짓으로 訴狀을 올려 시험하려 하였다. 공이 죄를 주려고 하였으나 이미 시일을 놓쳐 버렸다. 후에 공이 마침 城을 나가다가 동문에서 말을 끌고 가는 한사람을보고 즉시 말하기를 이놈이 전날 거짓 소장을 올린 놈이구나. 하였다. 그사람이 당장 굴복하는데 아전과 백성들이 귀신이라고 하였다.

반정초에 실시하는 정치는 대개 공에게서 나온것이 많았는데 밤낮으로 몸을 괴롭히면서까지 정신과 생각을 다하였기 때문에 며칠사이 수염과 머리카락이 다 희게 되었다.

명나라에서 姜王·두 조사가 왔는데 공이 接伴使가 되어 조정의 명으로 毛文龍을 섬에가서 보았다. 공이 일찌기 모문 통을 위하여 그 비문을 지었으므로 모문통이 매우 존대하였으며 공이 말하는 것을 모두 따랐다.

신미년 봄에 임금이 공과 李貴를 편전에 불러 집안 사람의 예(家人禮)로서 대접하고 있어 小宴을 베풀었다. 잔치가 반쯤되어 임금이 동궁과 대군을 돌아보며 이 르기를 너희들은 두분을 보기를 아버지들 보듯 하라 하였다.

신홍이 공이 反正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평소 에 보니 眼光이 기이한

것이 참으로 영웅의 자질이었다고 하였다. 죽을 때가 되어 소를 올렸는데 대략에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이 죽음을 이르도록 없애지지 않습니다. 오직 바라는것은 전하게서 하늘의 노여움을 공경하여 국가의 영원한 운명을 빌것이며 백성의 원망을 불쌍히 여기어서 나라의 근본을 공고하게 하소서. 사사로운 뜻을 누르시고 충성된 말을 용납하시고 어진 인재를 맞아들이고 벼슬을 함부로 주지 마시고 중히 여기소서 하였습니다. 우암집 비문

겨우 들이되어 미처 말을 잘하지 못하였는데 홀연히 나비가 저미줄에 걸린것을 보고 문득 말하기를 저미가 나비를 잡아먹는 것이 밍다.하니 듣는 사람이 기특히 여겼다.

7·8세에 능히 글자를 알고 기골이 비범하였다.

사소리가 천지를 움직인 다하여 보는이가 그가 遠大한 그곳이 될 것을 알았다.

과거를 서두르지 않고 性理學에 유의 하였다. 別詩에 장원하였는데 그가 지은 글을 신조가 보고 경원에 있는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나이 젊은 선비가兵法의 말을 많이 사용하였다. 아마 병법을 아는 자가 아난가 하였다.

대비를 폐하는 정청대에 兩司에서 합계하여 정청에 참여하지 않은자는 귀양보 내기를 청하였는데 공의 이름도 그 가운데 있었다. 공을 공격하여 말하기를 그 마음이 어디 있는가는 불을 보는것같이 환하니 정청에 참여하지 않는것은 오히려 논할것도 없다. 하였다.

혼자있을때에 늘 통분하고 개탄하며 뜻이 나라를 바로잡아 다 시 세우는데에 있었다. 마침 정승 신경진이 왔는데 공의 평소부터 그의 사람됨이 침착하고 굳세어 그와 함께일할수 있을것을 알고 있었다. 눈물을 흘려 울면서 말하기를 옛날이 나 지금이나 어찌 어미 없는 나라가 있는가 이씨의 종묘사직이 아직 저녀 짝이 아침 저녁으로 왕망과 동탁의 손에 옮겨질 것이니 우리 가 어찌 말쑥될것을 두려워하여 위태롭고 망하는 나라를 앉아서 보고만 있을것인가. 또 하물며 우리 두사람의 아버지가 계시니 나라일로 함께 돌아가셨으니 우리 두 사람이 종묘사직을 위

하여 함께 죽지 않으려 하여 땅게 돌아가신 어른들을 地下에서 빌것인가 하였다.

신공이 팔을 건어 불이며 무릎을 맞대고 말하기를 그것이 나의 뜻이다. 하여 드디어 크게 화이 정해져서 서로 죽음으로서 다짐하였다.

계해년봄에 인조가 잠저에 있을때 공의 집에 찾아가서 밤이 새도록 담론하였다.

공이 일찌기 당론을 개탄하였기 때문에 이조판서가 되어서는 오로지 調停하는것을 뜻으로 하였다. 향사 사람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일만번 죽음을 각오하고나서 반정을 한것은 종묘사직을 위한것이다. 이제 또 黨을 세운다면 반정의 본의가 아니다. 하였다.

〈명나라〉에서 조사 姜曰廣과 王夢尹이 왔는데 공이 문일이었다.



社毅公文忠公神道碑

이공정하였다. 공이 그들의 시에 화답하면 그들은 대양 絶妙하다고 칭찬하였다. 그들이 돌아간뒤에 우리 사신의 인편에 공에게 책과 갈포등을 부쳐 보냈는데 전에 잘보지 못했던 문일이었다.

前古未有의今年異蕃를 當하여 避暑兼觀光차로 意思相通한 親知와 相伴하여 關東八景을 遊覽하게 된바 마침 우리 順天金氏와 因緣이 깊은 幸越의 莊陵及淸寧浦를 지나며 無心히 지날수가 없어 過莊陵所感 莊陵을 지남에 느낀바를 적는다.

好友相從作遠遊 좋은 벗들과 서로꽃아서 멀리 놀러가기로 작정하나 關東處處搃仙區 관동 곳곳이 다 신선들의 절경이더라

莊陵暮道千思伴 장릉저문길에는 천가지 생각 같이 하고 淸浦遺墟萬感浮 淸寧포남은터에는 만가지 느낌이 든다

山擁悲懷雲際立 산은 슬픈 회포를 품고 구름지음에 서고 江含冤恨石頭流 강은 원통한 한을 머금고 돌머리에 흐른다

傷心癸酉前朝史 마음이 상하는 계유년 전조의 역사는 子規聲中度幾秋 소리수에 몇가을이나 지났는가



四世忠烈門

이팔의 난리때에 임금이 公州에 파견하여 山城지킬것을 의논하였는데 공이 임금을 따라 산성에 올라 단 칼을 손으로 써서 차고 있던 칼을 손으로 써서 성안밖의 형세를 가리켜 그리며 수비하는 계책을 논하는것이 매우 상세하여 여러 사람의 마음이 굳게 되었다.

성적이 엄하며 무섭고 모습이 준수하고 시원스러웠다. 키는 보통사람을 넘지 않았지만은 모양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牛溪가 旅舍에서 보고 큰그릇이라 하였다.

공의 友人으로 일찍 죽은 姜某란이가 있었는데 그 남긴 아들을 부양하기를 의복 음식도 같이 하였다. 그사람이 죽으니 공이 장사와 제사를 유감없이 하였다.

공이 남을 깊이 잘 사귀지 않고도 술을 잘 마시지 않았으나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가가 유가루 날리듯하고 술잔을 권하면 和한 기운이 풍겼다.

공의 글은 기운이 雄渾하고 범도가 임하였다. 사람들이 산소의 비석에 공의 글을 일으면 다행으로 여겼다.

南岡 金俊永稿